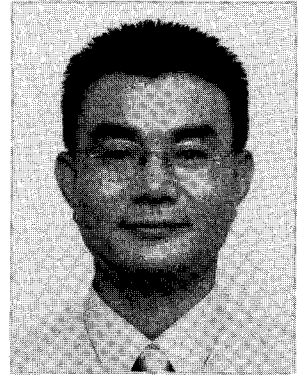




교끼오 광장

만두이야기



김 재 현

건업농장대표/본지편집위원

지금 온 나라안이 만두로 떠들썩하다.

본래 만두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제갈공명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삼국지연의에 의하면 남만 정벌시 사람의 머리 49개를 제물로 바쳐 귀신을 달래야 했는데, 공명이 고심 끝에 대용품으로 사람 머리 모양의 밀가루 반죽에 소와 양의 고기를 채워 만두를 빚었다고 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먹는 만두(饅頭)의 효시다.

우리 나라에도 고려시대부터 만두를 먹기 시작했다. 복을 써서 먹는다는 의미의 만두가 지금은 대중적 사랑을 받는 먹거리로 성장하였다. 그런데 만두가 세상을 발각 뒤집어 놓았다.

후례자식!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확실히 처벌해야 한다.

불량 만두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과 네티즌들의 탄성이 만두의 불신을 넘어, 분노로 폭발하면서 당국은 관련업체 명단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만두 매출은 90%까지 급감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인터넷 게시판에는 비난의 글이 쇄도하였고, 급기야는 명단에 포함된 업체의 한 젊은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에 이르렀다. 만두가 사람을 죽인 것이다.

예전 같으면 만두소 제조업체에 대한 가벼운 제재와 수거로 끝났을 불량 만두 파동이 마녀 사냥식 여론 재판에 밀려 졸속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한다. 품질검사 공인기관은 적합 판정을 내렸으나 단속기관은 불량으로 취급했다. 언론과 정부의 대응은 깔끔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과정에서 명단에 포함된 업체들은 파산지

만두사건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 한번 돌아선 소비자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는 데에는 그만한 대가가 필요하고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경에 이르렀고, 나머지 만두 제조업체도 혼수 상태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처럼 식품 사고는 파장이 크고 예민한 문제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발표했어야 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지, 이제 만두 파동이 축산물 항생제 잔류 문제로 그 불똥이 될지 모른다. 사실, 불량 만두보다 더 큰 문제는 축, 수산물 항생제 남용이라고 언론은 공공연히 떠들고 있다. 의약분업으로 사람들의 항생제 오남용은 줄었지만 식품으로 인한 항생제 남용은 여전하다고 의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가축용 항생제 규제 부분은 지금까지는 무풍지대나 다름없다는 시각과 항생제로 범벅된 가축 사료를 먹고, 항생제 고기가 식탁을 점령해도 규제,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은 항상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발표에 의하면 축종별로 돼지 → 닭 → 양식 어패류 → 소 순서로 항생제의 54%가 치료 목적이 아닌 예방용으로 사료에 첨가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양계 업계도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책으로는 첫째, 휴약 기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용량, 용법을 꼭 지켜서 양계 산물이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둘째로는 철저한 차단 방역과 백신 프로그램 실시로 질병 예방에 힘써야 한다.

셋째로는 항생제 사용이 부득이한 경우, 전문 수의사와 상담하여 감수성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웰빙(well-being) 바람을 타고 먹거리, 주거 환경, 정신 수양 등 모든 분야에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커다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 흐름속에서 이번 만두 파동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두사건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 한번 돌아선 소비자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는 데에는 그만한 대가가 필요하고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언제까지 쉬쉬하고 있다가는 소비자는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일명 조류 독감)로 명든 우리들에게 사망 선고를 내릴지도 모를 일이다. **양계**